

종교체험의 해석적 성격:
스힐레벡스의 해석학으로 본 대순 사상

The Hermeneutics of Religious Experience :
Daesoon Thought in the light of Schillebeeckx's Theological
Hermeneutics

이 찬 수
(한국, 강남대학교)

《 Abstract 》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how Daesoon thought keeps its own identity while being practiced as a religion in Korean culture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ological hermeneutics of E. Schillebeeckx, a representative theologian in 20th century, especially on the centering of the matter of experience.

Schillebeeckx says that an experience is an occurrence of perception by encountering something different from oneself. According to him, 1) the occurrence of perception is premised on a framework or form of interpretation which prescribes experience as the experience in the perceptive dimension. 2) A framework of interpretation is subject to pre-existing system or structure which already has formed a basis to the experience. It consists of various interpretative elements such as social form, general knowledges, various experiences, theoretical models in their society, etc.. 3) The experiences take place in the reflection of contemporary situation, and it is understood by a society, thus making it a social stream. This experience is expressed historically, gains historicity in the process of being handed down from person to pers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is way, an experience starts to form a tradition. 4) The tradition is a historical stream which gives rise to, admits, and integrates various experiences, religious revelation, and faith etc. In this way, the tradition as a historical stream becomes a field of religious actuality such as revelation, salvation, etc.

Conclusively, a religion takes place, is formed, only when it is understood anew by the people who live in that cultural tradition through their languages. The ground Daesoon thought takes place, is formed, is in this way. Daesoon thought takes place in the core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undergoes changes when it encounters the other stream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the vice versa. Because of this inevitable change, ironically enough, Daesoon thought can maintain its own identity as Daesoon thought, and Korean culture its own identity

as Korean culture, avoiding falling into the tertiary which is neither Daesoon thought nor Korean culture. It is in this way that any religion can be in the faithfulness to its starting point to be enriched and transformed in its interaction with the other tradition. At here is the reason Daesoon thought has to have an openness to the changing world.

※**Key words:** hermeneutics, a framework of interpretation, interpretative experience, revelatio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Schillebeeckx, Daesoon Thought, 해석학, 해석의 틀, 해석적 체험, 계시, 연속성과 불연속성, 스킬레벡스, 대순사상

I. 칸트로 종교 보기

주지하다시피 칸트(I. Kant)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인식한다고 할 때, 그 인식의 대상이 먼저 거기에 자명하게 있기에 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유 방식을 근원적으로 문제삼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 의해 인식된 것은 그렇게 인식된 것 자체, 즉 ‘물 자체’(Ding an sich)가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인식한 주체의 바탕 및 구조와 관계되어 있다. 인식 주체의 내적 구조가 어떤 대상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기에 그러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구체적 대상이 먼저 있고 그에 따른 인식이 나중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이 우리의 인식에 따른다는, 이른바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었다.

물론, 그에 의하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더불어(mit) 시작되고, 따라서 경험은 인식에 선행하는 것이지만, 모든 인식이 경험으로부터(aus)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경험적 지식은 언제나 후험적(a posteriori)으로 얻어지되, 그 경험적 지식을 경험적 지식이 되게 해주는 그 무엇이 먼저 주어져 있지 않고서야 그 경험적 지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 인식론의 근간이었다.

이렇게 어떤 인식의 대상은 인식 주체의 내적 구조를 통해서만 그 인식 주체에게 하나의 현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물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조건에 맞게 인식될 수 있는 사물 혹은 사태만을 인식할 뿐이다. 구체적인 하나의 인식 대상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선험적 구조 위에서만 그러한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규정됨으로

씨만 그 대상이 하나의 대상으로, 즉 하나의 현상으로 주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칸트는 우리의 인식이 대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우리의 인식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장은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실들을 함축하고 있다. 거기서 다양한 해석학적 이론들도 생겨났지만,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어떤 이해든 그 이해 주체의 기존 인식 구조 혹은 선 이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적, 신앙적 사실이라도 그것은 그 종교학자 혹은 신봉자의 내적 틀 혹은 형식을 반영해주며,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토양에 의거해서만 그러한 종교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충실히 소화하고 있는 스킬레벡스(Edward Schillebeeckx, 1914-)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종교들이 한국에서 생겨나고 자리잡게 되는 과정 및 의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스킬레벡스는 화란의 신학자이며 도미니코회에 소속된 천주교 신부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칼 라너, 버나드 로너간 등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가톨릭 신학자이다. 신학자라지만 그의 신학적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칸트 이래 가다머(Hans-Georg Gadamer)에 이르기까지 전개되고 확립되어온 해석학을 충실히 소화하면서 이루어진 철학적 기초 위에 있다. 이러한 그의 해석학적 방법론은 서양의 사상과 학문의 영향권에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종교적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도 충실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판단이다. 한 종교적 사상이 한국 안에서 한국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인들은 자신의 세계관 내지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적절한 자료 중 하나가 그의 해석학적 신학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종교 상황을 서양에서 발생한 해석학적 방법론에 따라 조명해봄으로써 한국의 종교 문화와 사상을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사상 내지는 문화 지평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번역’이 단순한 문자만의 옮김이 아니라, 사상과 문화의 전달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본 논문은 일종의 이러한 ‘재번역’ 작업을 염두에 두고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종교 자체를 다루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체험이 발생되고 전승되며 하나의 종단으로까지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동서양 종교들 간에는 구조적 유사성이 있음을 신학적 해석학의 방법론을 빌어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단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체험’하는 현상에 대한 스킬레벡스의 해설로부터 시작해보자.

II. 인식적 체험과 해석의 틀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 ‘체험’(體驗)의 의미는 “몸소 겪음”이다. 이것은 “일에 직접 부딪쳐 얻은 지식이나 기능 내지는 그러한 행위”로서의 경험(經驗)과도 비슷한 말이다. 이 체험은 그 체험자를 변화시킨다. 거기에는 ‘배움’이 들어있다. 체험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은 새로운 체험의 기초로 작용한다. 이렇게 체험과 배움은 순환적이다. 이와 관련한 스킬레벡스의 말을 들어보자.

체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구체적 체험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및 체험과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한 과정이다. 이것은 순환적 효과를 낳는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체험 전체가 새로운 체험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틀(an interpretative framework) 혹은 체험의 지평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 선제하는 해석적 틀은 이들 새로운 체험에 의한 비판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보완해주기도 하고 정정해주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근본적인 모순을 낳기도 한다. 여하튼 새로운 체험들의 결과 우리가 이전에 이미 체험했던 것은 새로운 맥락 안에서,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보이게 된다. 우리의 체험들은 언제나 선제하는 해석의 틀 안에 있다. 결국 이것은 과거에 축적된 인격적이고 집단적인 체험, 달리 말하면 체험의 전통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해석적 틀은 특정한 현재의 체험을 받아들이는 총체적인 것으로서, 그 체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 결과 그것은 의미의 체험이 된다. 물론 이 해석적 틀은 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현재적 체험으로 생성된다. 당시 해석적 틀 혹은 체험의 지평으로 작용하던 이전의, 좀 더 한정시키면 축적된 체험 - 그 때는 새로웠던 체험이면서 지금은 우리 해석적 틀의 일부가 된 - 이 비판적 내지는 적어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해석적 틀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이전에 이미 체험한 사건들과 사실들로 되어 있는 것이다.¹⁾

그 무언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무언가가 체험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그 체험을 그 어떤 체험이라고 규정해주는 하나의 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틀 안에서 그 어떤 체험이 그 어떤 체험이라고 해석된다. 그래서 “해석의 틀”(a framework of interpretation)이다. 체험되는 그 무엇이 있고, 또한 그 체험을 그 어떤 체험으로 규정해주는 해석의 틀이 이미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상은 칸트 철학의 기본이기도 하면서 스킬레벡스 사상의 토대이자 열쇠이기도 한다.

스킬레벡스에게서 체험과 해석의 틀은 두 개의 분리된 과정이 아니며, 적대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해석의 틀은 오히려 체험 자체의 구성적 계기(constitutive moment)이자 그 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어떤 체험을 어떤 체험이라고 규

1) E. Schillebeeckx,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 New York: Crossroad, 1991, pp.15-16.

정해주는 해석의 틀 없이는 체험이라는 것도 없으며, 그 해석의 틀이 체험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구조(structure)나 형식(form)의 요소는 우리 사고에 외적으로 덧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본질적 요소이다.”²⁾

그런데 인류는 다양한 구조와 형식 안에서, 앞의 표현대로 하면 상이한 해석적 틀 안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다른 환경과 다른 지평 속에서 그 어떤 체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이 다른 그만큼 인간은 체험도 달리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저마다 다른 방식에서 그 무언가로 보는 것이지, 동일한 체험을 그저 다르게 해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³⁾ 체험 자체가 다양하다. 이것은 넓게는 특정 사회나 집단에, 좁게는 개인에 모두 적용된다. 체험이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도, 순수하게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 체험은 “심리적, 사회 역사적 진공 속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체험은 이미 체험하는 인간의 주체적 능력, 즉 그 체험자의 기억력과 감수성,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희망 사항에 의해 채색되어 있고, 집단 혹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체험을 표현하는 전통적 양식, 한 사회에 유행하는 객관적 형식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식을 동화시키는 능력이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체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체험 자체가 다양하다.

한 마디로 체험은 해석적 틀에 조건지어져 있다. 조건지어져 있는 그만큼 체험에는 이미 해석적 요소가 들어있다: “선택적 해석들은 우리가 세계를 체험하는 바로 그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⁵⁾ 이런 맥락에서 스텔레벡스는 체험과 해석을 선(先)·후(後)의 이분법적 도식에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해석적 체험”(interpretative experience)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을 한 데 묶는다. 체험은 해석적이다. 보편적 인간 체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석적 체험이 있을 뿐이다. 해석하는 행위 속에서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해석적 체험들을 한다. “종교인은 비종교인과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 속에서 다른 체험을 하며 사는 것이다.”⁶⁾

그렇다면 체험의 요소와 해석의 요소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체험이란 해석하

2) E. Schillebeeckx, *Christ: The Experience of Jesus as Lord*,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p.53.

3) E. Schillebeeckx, 위의 책, p.53.

4) E. Schillebeeckx, 위의 책, p.16.

5) E. Schillebeeckx, 위의 책, p.53.

6) E. Schillebeeckx, 위의 책, p.49.

는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해석이란 그 체험을 규정하는 언어적 행위이다. 체험의 내용이 언어로 옮겨지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체험은 하나의 언술 사건(a speech event)이다. 그리고 그만큼 체험은 사유와 언어에 어울리는 인식적인 것이다. 스킬레벡스에게 체험은 감성적인(emotional) 것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인식적 실재(cognitive reality)이다. 감성의 ‘힘’도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 인식 역시 순수하게 개인적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역사적 지평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며, 그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는 체험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성적 환상과 구분된다. 체험은 사회적으로 소통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험은 그 체험이 생기게 된 전제들이 참작되는 곳에서만 체험이 된다. “체험 속에서 우리는 체험된 것을 확인 하되, 이미 알려진 모델들과 개념들, 양식이나 범주들을 써서 그 체험을 분류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론화 없는 체험, 즉 추측, 가설, 이론이 없는 체험이란 없다.”⁷⁾ 결국 체험의 요소와 해석의 요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 체험 안에서 긴밀하게 한 데 묶여 있는 것이다.

III. 해석적 요소와 해석적 정향

체험은 기존의 해석적 틀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체험에는 언제나 이미 의미가 들어있다. 의미는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현재의 체험이 기존의 해석적 틀 안에 받아들여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의 체험은 새로운 체험의 결과 변화된 맥락 안에서 다시 보이게 된다. 그 변화만큼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의미의 발생분만큼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개개인의 조작 수준 너머에 있다. 주어진 지평을 누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듯이, 체험은 인간의 의도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체험은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이다. 스킬레벡스는 이를 두고 인간의 모든 예상을 넘어서는 실재(reality)가 부여될 때 체험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체험이란 예상 밖의 어떤 실재가 인간과 부딪치면서 인간 안에 발생하는 것이다. 실재가 인간의 삶 안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른바 실재의 탈은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재는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 자료들을 통해서 탈은폐된다. 스킬레벡스는 이러한 자료를 해석적 요소들(interpretative

7) E. Schillebeeckx, 앞의 책, pp.32-34.

elements)이라고 부른다. 이 요소들은 체험에 구조와 형식을 제공해주는 개념들과 모델들 -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회의 형식, 과거의 지식, 경험, 설교, 사회의 근본 이론적 모델 등 -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소들 안에서, 그리고 이 요소들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불러일으키고 변화시키는 실재가 탈은폐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올바른 해석의 열쇠를 이미 쥐고 있는 해석적 요소들 안에서 실재가 스스로를 전달해줄 때 새로운 체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의 ‘공’(空)이 도가의 ‘무’(無) 차원에서 격의적(格義的)으로 번역됨으로써 중국적으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물론, 역사적 존재인 예수가 도리어 신적으로까지 높여지게 된 데에도 이러한 해석적 요소들이 작용했다. 붓다 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보고, 예수 안에서 신이 제공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을 그들 종교 문화에 이미 흐르고 있는 어떤 핵심 개념들, 즉 붓다, 그리스도 등과 같은 개념들을 써서 이해한 것이라는 말이다.⁸⁾ 그런 점에서 각 종교들의 이론적 출발점은 붓다나 예수 자체 내지는 각종 교리서 같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붓다 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보고 예수 안에서 신의 궁극적인 구원을 본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에 있다. 응당 이 운동 안에는 당시의 힌두교적, 유대교적 맥락이 녹아 있는 것이다. 종교학자 스위들러(Leonard Swidler)가 강조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으며,⁹⁾ 피에리스가 말하듯이 고타마가 붓다로서 해석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증산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일종의 우주적 존재인 상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한국적 상황과 토양에 어울리는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한국종교사적으로 보자면 강일순이라는 인물이 스스로를 상제로 내세우면서 그에 동의하는 제자들을 규합해 하나의 종단으로 확립해나갔다는 식의 현상보고적 서술만을 주로 할 수 있겠지만, 종단에 속한 신자들의 눈으로 보자면 그것은 구천상제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어느 정도 필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천상제께서 육신을 입기 이전에 이미 천하를 대순(大巡)하신 뒤, 이 땅[東土]에서 30년간 몸을 감추고 계시다가 최제우를 거쳐 ‘일순’이라는 존휘를 쓰는 분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응당 그러한 신앙적 해석에는 넓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구한말의 문화사적인 지평이, 좁게는 막연하게나마 ‘하늘’ 혹은 ‘상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던 한국인 개개인의 삶의 상황이 놓여있는 것이다. 애당초 ‘하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어찌 선천(先天), 후천(後天), 개벽(開闢)에 근거한 세계관과 같은 것이 등장할 수 있었겠는가. 유

8) E. Schillebeeckx, *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p.49.

9) 레너드 스위들러, 《絶對, 그 이후: 종교간 대화의 미래》, 이찬수 외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가운데 제6장은 이런 시각에서 종교간 대화의 이론적 토대를 놓고 있다.

불선은 물론 무속, 동학, 서학, 주역 등 기존 한국인의 종교적 선이해들이 증산의 가르침을 낳게 하고 또 이해하게 하는 지평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스틸레백스의 표현을 빌자면, 어떤 종교 형태이든 신앙적 전개 안에는 이미 해석적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요소들은 또다시 새롭게 변화된 해석적 요소들 안에 수용되면서 전승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적 요소들은 새로운 체험을 발생시키고, 그 전 과정을 인도한다. 강일순이라는 인물의 내적 체험이 그에 공감하는 제자단을 통해 새로운 체험들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해석적 요소들 안에 일정한 방향성이 들어있는 셈이다. 스틸레백스의 표현대로 하면, 해석적 요소 자체 안에 해석적 정향(interpretative orientation)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 해석적 정향으로 인해 해석의 모델이 결정될 뿐 아니라, 해석적 정향은 그 모델에 새로운 의미까지 부여해 준다. 증산에게 적용된 ‘구천상제’ 개념이 옥황상제라고 하는 도교적 개념은 물론, 한국인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하늘 혹은 천지신명 개념과도 다른 내용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해석적 정향은 모든 시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나침반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해석 모델이나 요소를 사용하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들에 다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체험의 방향을 인도한다. 체험이 당시 상황에 맞는 해석적 요소들 안에서 자신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순진리회든 증산도든 천도교든 원불교든 한국 안에서 자생한 종교들은 이러한 해석학적 원리를 성찰하면서 늘 새로운 상황에 맞는 종교적 원리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내야 할 과제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미 세계의 보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그리스도교나 이슬람, 불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IV. 대조체험과 체험의 권위

스틸레백스에 의하면, 체험에도 권위가 있다. 그 권위란 기존의 해석적 요소와 모델에 새로운 의미를 주고, 다시 새로운 체험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다. 단순히 개인적 체험의 감성적 질(emotional quality)이 특출하다는 사실만으로 권위있는 체험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주는 체험일 때 권위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준다는 것은 그러한 체험이 소소한 일상적인 체험 수준에 머물거나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체험을 자극하고 바꾸어놓을 만큼 일상적 체험 ‘밖’에서 오는 것이라는 뜻이다.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실재와의 만남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위있는 체험은 인간의 계획과 의도를 넘어 혹은 그 반대 방향에서 부여된다. 실재는 인간을 당혹하게 만든다. 실재는 늘 인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을 드러낸다. 따라서 체험도 언제나 인간이 계획하고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에서 온다. “실재가 우리의 이성적 고안물들에 끝없이 저항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새로운 미경험의 사유 모델을 갖도록 해준다.”¹⁰⁾ 이처럼 실재는 기존의 틀이나 고정 관념을 흔들어놓으면서 다가온다. 진리가 알려지는 것도 이러한 방식에서이다.

진리는 우리가 이미 성취하고 계획한 것의 소외와 방향 상실에 의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은 이른바 실제적인 것 혹은 ‘그저 주어진 것’을 규범화하고 독단화하는 것을 깨버린다.¹¹⁾

한 마디로 실재는 항상 예기치 못하게, 인간의 의도와 반대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스킬레벡스는 이 반대의 체험을 “대조 체험”(contrast experience)이라 부른다. 대조 체험은 일종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앞에 그 욕망과는 달리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욕망과 고통의 차이만큼 새로운 체험을 불러일으키고,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며 의미를 발생시킨다: “의미의 영역은 우리의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삶 안의 부정적 대조 체험 안에서 드러난다.” 인간 편에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비판적 대항 안에서” 의미의 영역이 드러나고 표현된다는 것이다.¹²⁾ 그런 점에서 대조 체험은 추구하는 행복, 자유 등에 대한 부정적이고 변증법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의미의 영역은 이처럼 부정적, 변증법으로 드러나며,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실존을 형성한다. 대조 체험은 인간을 인간으로 실존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체험인 것이다.

인간이 종교적 진리를 만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대조 체험 안에서이다. 종교적 차원에서 그 진리를 ‘신’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신은 늘 뜻밖의 방식으로 체험된다. 기대치를 넘어선다. 그러기에 ‘초월적’이다. 인간이 장중(掌中)에 움켜쥔 진리는 더 이상 진리 전체가 아니다. 스킬레벡스는 이런 성서 구절을 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이사야 55:8) 신은 인간에 의해 계획된 체험이 아닌, 부정적 대조 체험 안에서만 알려진다는 뜻

10)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35.

11) 같은 글.

12) E.Schillebeeckx, *The Understanding of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4, p.65.

13)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189.

이다. 인간의 계획과 한계를 부수고 인간의 유한성을 끝없이 깨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실제의 체험이 바로 대조 체험이다. 그런 까닭에 대조 체험이 구원 체험을 낳는 맥락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증산에게서 보인 뜻밖의 비범한 인격적 혹은 종교적 체험이 후학들에게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열어준 것이리라.

V. 체험의 역사화: 전통의 형성

기존의 체험과 다르게 발생하는 이 대조 체험은 그 힘이 강력하여 체험자로 하여금 그 체험의 증인이 되게 한다. 어찌되었든 증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과 생각들도 제자들이 그의 인격, 세계관, 가르침 등에서 체험한 놀라운 매력을 증언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체험자는 그 체험의 힘에 이끌려 발생한 사태에 대한 이야기, 즉 메시지를 다른 이를 위해 전하게 된다. 체험의 권위는 이와 같은 이야기 구조(narrative structure)를 가진다.¹⁴⁾ 체험이 전해지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체험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새로운 체험에 개방적이게 만든다. 이해를 제한시키기도 하고 또 새롭게 이해시키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삶은 갱신되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체험은 그 이야기 구조로 인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체험이 역사적으로 표현된다는 뜻이며, 한 집단이 공유하는 자료 안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체험은 전승되면서 ‘전통’을 형성한다. “체험의 전통이란 사람들이 세계 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과 수단의 계속되는 역사적 표현”이며, “새로운 체험들을 객관화하고 그것들을 이미 얻어진 것 안에서 통합하는 수단이다.” “달리 말하면 특정한 인간이 지닌 체험의 역사적 지평인 것이다.” 체험과 전통은 결코 분리되지도 않고 대립적이지도 않다. 그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능하게 해준다. 체험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한 전통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며, 다시 그 전통을 변화시킨다. 이들은 순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은 새로운 체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것이기도 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체험과 이해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그것은 우리의 체험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미 인도하고 있는, 선택적인 것이다.”¹⁵⁾

그러면서 전통은 또 새로운 체험들을 통합하고, 그만큼 스스로 변화된다. 기존

14)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38, p.21.

15) E. Schillebeeckx, 위의 책, p.38, p.49.

의 것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것을 통합하는 데서 전통이 확립되는 것이다. 바로 이곳에 전통의 힘과 권위가 있다. 전통은 새로운 체험들을 낳고 또 새로운 체험들을 흡수한다. 그렇게 변화되면서 끝없이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문을 닫아 놓은 채 체험을 일방적으로 ‘조작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문자적 표현을 모든 시대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물론 안된다. 대순사상은 지상적 존재 증산의 비범한 인격, 메시지, 삶, 세계관 등을 기원으로 해서 발생한 해석적인 것이며, 언제나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진술과 선포는 “언제나 다양한 형상들 및 해석적 요소들과 함께 끝없이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되어야 한다.”¹⁶⁾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리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실재를 가려버리고,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생생한 체험을 화석화시킨다. ‘하늘’은 땅 위의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움직이는 곳에 있다. 이것을 잊어버린 곳에는 더 이상의 체험의 힘도, 새로운 체험의 가능성도, 따라서 권위도 없다.

VI. 체험과 계시

제자들은 스승의 행위를 체험하고 말로 표현한다. 그 속에서 ‘하늘’의 이치를 읽어내고, 후천선경의 세계에 대해 기대한다. 이렇게 스승을 통해 내 안에서 읽혀진 하늘의 이치가 이른바 ‘계시’이다. 그것은 하늘의 행위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체험되고 전달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체험은 계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학적 조건이며, 계시는 체험 안에서, “사건, 체험, 해석의 긴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체험과 계시는 단순 동일시되지 않는다. 계시가 인간에 의해 체험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먼저 뜻밖의 실재와의 만남 속에서 주어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간적인 표상을 빌건대 ‘위에서’(from above)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⁸⁾ 하늘은 인간 안에서 드러나되, 인간 안에 갇히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해 초월적이다. 가령 스텔레백스는 이렇게 말한다: “신의 역사 내 행위는 어떤 ‘간섭주의자의 행위’나 역사가가 측정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산물이 아니다. 신의 행위는 물론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16)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p.634-635.

17) E. Schillebeeckx, 위의 책, p.46.

18) E. Schillebeeckx, *Interim Report on the Jesus & Christ*, New York, Crossroad, 1982, p.12.

창조적인 신성한 행위이다.”¹⁹⁾

신의 행위가 절대적, 초월적이면서 창조적인 행위라는 말은 다시 그의 표현을 빌건대 신은 가장 멀고도 가장 가까운 자(Ultimate-Intimate One)라는 뜻이며, 신의 초월성 역시 역사 안에서 확인되는, 역사 안에서만 말해질 수 있는 초월성이라는 뜻이다. 초월자도 내재적 체험 안에서만 드러난다. 신이 멀리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신을 가장 가깝게 체험하는 곳에서도이다. 그래서 역사 안에 제약되어 있는 인간이 역사를 넘어서는 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모두 이런 저런 방식으로 신의 초월적이고 창조적인 행위가 우리의 세계 안에서 표현될 것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 안에서의 신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말을 정당화해야 할 아무런 근거나 기회도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신의 초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우연성 외에 다른 기반을 가지지 않는다. 종교 언어는 탈은폐로서의 우리의 우연성 체험으로부터 재료를 끌어온다. 여기서 심원한 시각이 열린다.”²⁰⁾

즉,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그저 ‘우연한’ 체험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성을 자각하는 그곳에서 우연성을 넘어서는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 내 신의 행위에 대해 말하는 신앙 언어”에는 인간의 체험적 기초가 있으며, 실제의 비신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이 명백해지는 곳에서 신적인 의미가 발생하고 하늘의 계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하늘의 계시를 드러내는 인간은 그런 점에서 ‘위대하다’. 인간은 “모든 신령 신들이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얻어낸 자손”²¹⁾이라는 구절도 어찌되었든 인간 존재의 고귀함과 위대성을 의미하는 말이라.

인간은 역사 안에 던져진 우연적 존재라는 사실에 인간의 실존이 놓여 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현실이 종교적 진리를 알려주는 체험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한적 존재인 인간이 절대자의 존재 방식에 대한 매우 특별하고 실체적인 기술이 된다. 그런 점에서 종교적 진리는 언제나 인간적 진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계시가 인간의 체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서는 인간적 본성이라든지 신적 본성이라는 식의 이원적 구분이 제거된다. 하늘은 땅 위의 체험 안에서만 총체적으로 알려지고 땅 위에서의 체험은 하늘의 존재를 드러내는 총체적 요소이다. 하늘의 계시와 이 땅에서의 응답은 “하나이자 똑같은 풍부한 실재의 두 국면이다.”²²⁾ 레비나스의 말처럼, “부름은 응답 안에서 들린다.” 순수한

19)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82, p.627.

20) E. Schillebeeckx, 위의 책, p.627.

21) 《典經》 교법 2장 36절.

진리 인식이란 없다. 하늘을 긍정하는 말도 현 지평에 종속되어 있고 하늘을 부정하는 말도 현 지평에 조건지어져 있다. 역사 안에서 하늘의 제도 행위를 체험하는 것은 주어진 체험의 전통, 해석적 요소, 해석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늘의 계시는 충분한 해석적 체험의 맥락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시 역시 해석적 체험이다. 계시는 계시로 체험될 수밖에 없는 그만의 해석적 요소를 자체 안에 지닌다. 계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역사적 집단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현상들과 개념들, 의미와 정서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언어 안에서 발생”하며, 폴 리쾨르의 표현을 빌리면 “믿을만한 자료”(le Croyable Disponible) 안에 주어지는 것이다.²³⁾ 자체 안에 해석적 요소를 지니고 “믿을만한 자료” 안에서 주어지는 까닭에 어떠한 계시는 바로 그 계시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체험이다. 동일한 계시에 대한 다양한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시는 저만의 해석적 요소를 지닌 고유한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체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가 우리의 체험들로부터(from) 현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들 안에서(in) 현현한다는 것이다.²⁴⁾ 인간의 체험에 기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체험을 통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이며, 계시는 주어지되, 철저하게 인간의 우연성 체험 안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계시는 ‘위에서’ 혹은 ‘밖에서’ 오는 것이라는 오랜 표현을 스텔레벡스는 이런 식으로 해석적이고 내적인 체험 안에서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이다.

VII. 계시와 종교적 믿음

스텔레벡스는 믿음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면서 이렇게 말한다: “계시는 종교적 응답 안에서 자체를 현현한다.”²⁵⁾ 다시 말해 “계시의 내용은 결코 하나의 순수한 그대로의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신학적 반성을 포함하는 신앙의 언어 속에서 주어진다.”²⁶⁾

22)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48.

23)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82, p.48.

24) E. Schillebeeckx, 《Interim Report on the Jesus & Christ》, New York, Crossroad, 1982, p.12.

25)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50.

26) E. Schillebeeckx, 위의 책, 1982, p.52.

종교적 믿음 역시 그 자체로 순수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이미 교리적 반성이 들어있다. 누군가 무언가의 선포를 들음으로부터 생긴다. ‘덕이 베풀어지는 곳’[布德]에서 믿음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베풀은 그 개인의 해석적 틀이나 해석적 요소들을 이용함으로써만 비로소 베풀이 되고 그에게 신앙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창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지는 것이고 주어진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 속에서 또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주어짐과 형성 속에서 계시의 내용도 발생하는 것이다.²⁷⁾

이런 식으로 계시와 신앙 역시 상호 분리되지 않는다. 신앙은 주어지는 계시를 계시로 알아듣게 해주는 인간의 응답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해석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온갖 해석적 요소들을 자신 안에 통합시키면서 계시적 체험들을 발생시키는 총체적인 것이다. 신앙은 세상만사에 의문을 던지면서 기존의 의미에서 새 의미를 찾아내고 찾아낸 그만큼 변화한다. 부정적 대조 체험들 안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신앙의 체험이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²⁸⁾ 신앙이 일상의 부정적 대조 체험을 신의 계시로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은 이처럼 유한한 일상사를 신앙적 언어로 주제화시킬 수 있는 체험을 한다. 이것이 이른바 “탈은폐 체험”(disclosure experience)이다. 이 탈은폐 체험에서 종교인은 세속성 안에 갇히지 않는 넓이와 깊이의 차원을 인식한다.²⁹⁾ 탈은폐 체험으로서의 신앙이 종교인을 종교인답게 해주는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

종교적인 신앙은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삶이 되, 하나의 만남으로, 이 점에서는 신의 탈은폐로 체험되는 것이다. 이 나중의 것은 이론적 의미에서의 한 해석이 아니다.....그것은 사실상 종교인으로 하여금 그들 삶의 사건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특정한 방식’이다.³⁰⁾

이 신앙은 인간 전체와 관련된다. 그것은 인간 삶의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호한 인간의 체험을 유의미한 총체적 체험으로 인도해주는 적극적 요소이다. “인간은 그의 전 존재와 소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험한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가 기여하는 바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우리가 대상적인 것으로 -

27) E. Schillebeeckx, 《*The Understanding of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4, p.47.

28)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39.

29) E. Schillebeeckx, 《*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p.630.

30)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32.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들과 관련 사항들,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계획들과 관심사들에 의존한다.”³¹⁾ 계시는 내적인 응답에서만 발생하고, 그 응답은 언제나 “그 자신의 개념적 지평과 의문의 영역을 지닌 아주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³²⁾

VIII. 계시적 체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따라서 계시 안에서는 대상적 요소와 주체적 요소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은 된다. 해석학적 물음은 이런 구분을 전제할 때 나온다. 가다가 “시간적 거리”를 해석학 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하게, 스킬레벡스도 종교적 계시의 본래적 체험 안에서 신자들에게 온 것과 “기존의 해석적 요소들’, 즉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시대의 관용어들”³³⁾로부터 온 것을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종교적 구원의 내용과 역사로부터 온 대답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있음을 의미한다. 피치 못하게 신자들의 구원 물음은 그 종교의 주창자를 향해 있고, 그 안에서 우주적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체험이 전승되던 역사적 상황이 늘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자면 불연속적이다.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그 자체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공존한다. 공존하면서도 그것들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이 있다. 가령 도인들이라면 상제로서의 증산의 삶과 가르침에 결정적인 도전과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영향과 도전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끝없이 반복된다. 그만큼 증산으로 인해 전해진 도 자체와 현 도인들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연속적 긴장이 도가 유지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처럼 도전과 영향으로 인한 끝없는 변화야말로 진정한 연속성의 근원이다. 불연속성 안에서 발견되는 연속성이 가장 창조적인 연속성이다. 새로운 실재를 낳지 못하고 단순한 교리적 답습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그저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지나지 않을 뿐, 전혀 후천 세계를 여는 창조적 작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31) E. Schillebeeckx, *《Christ: The Experience of Jesus as Lord》*,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p.32.

32) E. Schillebeeckx, *《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pp.61-62.

33) E. Schillebeeckx, 위의 책, p.36.

IX. 제이의 경전으로서의 현재적 지평

이처럼 스킬레벡스는 종교의 정초자 안에서 보인 인간의 구원이 시대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연속되는’ 해석학적 문답의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 낸다.

첫째, 신자들은 언제나 해석적 요소들에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시작은 “언제나 다양한 형상들과 해석적 요소들을 지니고서 다함없는 방식으로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되어야 한다.”³⁴⁾ 증산 상제의 선포에 진지하면 할수록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 상황과 문화에도 진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현 상황과 문화가 종교적 진리의 문제를 종교적 진리로 피어오르게 해준다는 것이다. 진리가 한국 땅[土]에 뿌리내리는[着] 문제 이전에, 한국의 토양[土]에서 새로운 종교적 진리를 피어오르게[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새로운 해석적 맥락이 종교적 신앙의 내용을 살아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해석적 요소들이 더 이상 오늘의 상황과 상관없는 것이 되면 그 개념들도 변한다. 그렇지만 본래적인 체험이 전달되는 방식은 언제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이다. 그럴 때에만 사람들은 증산 상제의 천지공사 내용을 바뀐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긍정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각 종교인들의 체험은 모두 같지 않고 같을 수도 없다. 21세기의 구원 체험은 19세기의 그것과 같을 수 없고, 한국의 종교 체험과 서구인의 종교 체험이 같을 수도 없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그 만큼 인간이 원하는 구원과 행복이라는 것도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체험이 종교를 늘 변화시켜주고 심화시켜준다는 것이다. 종교적 진리가 선포[포덕]되면서 포덕지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포덕자 자신도 변화하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 다른 세계관과 문화 속에서 사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자기 종교에 빛을 비춰주고 새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그 전통을 심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종교든 자신의 핵심을 논하는 마당에 주어진 시대에 맞게 해석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외시킬 수 없고 시켜서도 안된다. 종교적 체험이 하늘로부터 온 인간의 구원이라는 객관적 현실과 그 구원에 대한 인간적 응답이라는 주관적 태도의 종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객관적인 것은 언제나 주관적인 것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적 구원의 보편성은 늘 현재의 구체적 조건들과 별도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자신들이 하는 자기 삶의 이야기 역시 하나의 ‘경전’과 다름없다. 스킬레벡스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언

34)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p.632-35.

행을 담은 네 가지의 복음서를 진리 판단의 척도로 삼는 그만큼, 자신이 처한 지평이 복음의 내용을 새롭게 해주며, 따라서 그것 역시 복음서에 버금간다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제5복음서”라는 용어를 구사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제5복음서 안에서 그들이 보는 예수의 역사를 만들고 쓴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틀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 본래 모습에 충실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진정한 의미의 경전은 문자화한 대순전경[典經] 안에만 갇혀있지 않다. 전경을 해석하게 해주는 현 지평 역시 또 하나의 경전인 셈이다. 도인들이 이해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지평 역시 문자화한 경전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다. 아무리 해도 경전은 독립적으로 읽히지 않는다. 경전 독서에 진정한 의미의 객관성은 없다. 처한 형편에 따라 시대 장소에 어울리는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의 원천으로 작용할 뿐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것이 경전에 권위를 부여해준다. 우주적 진리가 특정 시기나 사람 안에 갇히지 않고 시대를 넘어 모든 이에게 체험되는 것 역시 신앙 혹은 진리라는 것이 사회-역사적으로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X. 구원의 장소로서의 세상과 역사

종교적 진리가 현 상황에 맞는 해석적 틀에 따라 알려진다면, 진리는 그 자체로 직접 체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세계 ‘안에서’,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안에서’ 간접적으로 알려진다. 하늘의 이치는 늘 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땅의 역사는 언제나 하늘을 거슬러 말하는, 하늘 부재의 영역으로 보인다. 도대체 오늘 이 땅에 신이 어디 있는가 찾을 수 없을 만큼, 또 진리가 구현되고 있는가 알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곳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신을 거슬리는, 진리를 거슬리는 인간의 역사를 다시 거슬릴 때 종교적 진리가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늘의 계시는 언제나 인간의 현 상황을 통한다. 역사의 한 복판에서 벌어지는 부정적 대조 체험 안에서만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고, 우주적 진리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다.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종교들의 원천적 선포와 많은 경우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체험의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역사 체험 안에서 열린다. 스텔레벡스는 이렇게 말한다.

계시는 이 세상 ‘안’의 역사적 인간 체험 ‘안’에서 발생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한정된 세계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낸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른바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명한 체험에서 직접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체험으로서 계시는 인간 실존의 차원들 안에 있는 한계를 가로지르는(넘어서는) 것이다.³⁵⁾

계시는 인간의 실존 ‘안에서’ 발생한다. 인간 실존과 다른 차원의 것을 더 보태거나 뺄으로써가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 실존 그 안에서 발생한다. ‘초세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내적’으로 발생한다. 물론 세계 내 체험이 그 자체로 하늘의 계시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신적 인간 구원 행위가 이 세계 안에서 탈은폐된다는 말이다. 이것을 스킬레벡스는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mundum nulla salus)라는 명제로 표현한다.³⁶⁾ 진리가 드러나고 인간의 구원이 실현되는 곳은 바로 이 세상으로서, 인간의 구원은 이 세계 안의 구체적 체험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늘의 계시를 보고, 광대한 하늘이 제한적인 듯한 인간적 현실 안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깨닫는 구체적 세계 내의 체험이다. 인간의 유한한 현실, 이러한 현실에 눈뜨게 해주는 세상 안에서의 체험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세계는 우주적 계시의 매개이자 장소이며, 인간 해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세계 내 인간의 한계 체험, 우연성 체험, 그리고 인간의 고통 체험이 하늘의 계시를 매개하고 탈은폐시킨다. 스킬레벡스는 말한다: “신의 은총은 위로부터나 아래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안에 인간 상호 간의 만남 안에서 수평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³⁷⁾ 신적 계시의 근거가 놓여있는 곳은 우리의 고통스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유한과 대조의 체험, 그 한 복판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다!” 스킬레벡스는 이런 식으로 체험, 계시, 신앙 등을 해석학적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종교적 구원의 특수성과 보편성, 초월성과 역사성을 충실히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XI. 마무리하며

대순사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라는

35) E. Schillebeeckx, 앞의 책, 1979, p.62.

36) *Church*, p.xviii; pp.5-15. 이 명제는 1442년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선포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라는 그리스도교의 배타적 입장에 대한 현대 해석학적 변용이다.

37) E. Schillebeeckx, 위의 책, 1979, p.49.

사강령은 분명히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원천적인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이가 이러한 원천적 진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천적 진리와 현실적 적용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긴장이 원천적 진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종교적 진리란 어떠한 구체적 역사 안에서 알려지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늘 연속적 불연속성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자명한 이치의 반증이 된다. 동시에 인간의 유한한 역사적 현실이 원천적 진리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요청이 되기도 하다. 그러한 개혁적이고 개방적 실천이 끝없는 긴장 속에서도 원천적 진리를 구체화시키는 최상의 지평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텔레백스 해석학의 요지를 개관하면서, 한국의 종교적 맥락에 맞게 적용해보고자 했다. 특히 대순 사상이 생겨나고 전개되어가는 과정도 이러한 해석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과정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를 통해 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등을 간단하게나마 제시해보고자 했다. 필자 자신이 대순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삼자의 자리에 있다고 판단되기에 너무 쉽사리 그리고 단순하게 규정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종교에서든 한국의 종교에서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 안에서 이 땅의 상황에 맞을 때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담고 싶었다.

물론 이 땅의 상황이라는 말은 다분히 은유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신자들의 기복적인 자세, 진리독점적 배타적 자세까지 포함하는 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자세가 정당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나와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 자체에 더 무게중심이 놓여있는 말이다.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여려면 일단 나의 자세를 낮추고 나의 것을 비워야 한다. 이러한 비움과 낮춤, 그로 인한 받아들임의 행위는 그 자체로 종교적이다. 진리가 현재적 지평 속에서, 이 땅 안에서 피어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웃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채워지는 진리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자기비움의 포용적인 자세만이 동서양의 종교들을 상호 대립적으로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공존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이찬수, 《인간은 신의 암호》, 왜관, 분도출판사, 1999.
- Gadamer, Hans-George, 《*Wahrheit und Methode*》, Tübingen, J.C.B.Mohr, 1986.
- Schillebeeckx, Edward,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 New York, Crossroad, 1991.
- , 《*Christ: The Experience of Jesus as Lord*》,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 , 《*Jesus: An Experiment in Christ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9.
- , 《*The Understanding of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4.
- , 《*Interim Report on the Jesus & Christ*》, New York, Crossroad, 1982.
- Swidler, Leonard, 《*After the Absolute: The Dialogical Future of Religious Reflection*》, 이찬수 역, 《絕對, 그 이후: 종교간 대화의 미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전원배 역, 《순수이성비판》, 서울, 삼성출판사, 1985.